

2023년 7-1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7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16
[현대경제연구원(2023년 6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주요국 실물지표 미약한 흐름,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양상

- 미국은 5월 경제지표들이 미약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
- 일본은 4월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日銀(BOJ)이 현 대규모 금융 완화 기조의 유지를 결정하고, 유로존은 역내 실물지표들의 미약한 흐름에도 유럽중앙銀(ECB)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8차례 연속 금리 인상
- 중국은 5월 생산과 소비, 수출 등 내·외수 지표들이 동반 둔화세를 보이면서 인민은행이 '22년 8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경기 부양에 주력
- 달러화는 6월중 이후 주요국들의 차별적 통화정책 영향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인 이후 7월 들어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감에 하락
- 유가는 6월에 사우디의 추가 감산과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7월초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과 美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세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3%, 소비·투자 동반 증가

- 지난 5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증가 전환(전월비 3.2%)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감소(-0.1%)에 그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 증가율(1.3%)을 기록
 -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에서 증가하면서 0.4%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3.5% 증가

□ 금 용 : 5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7월 초순(7월 3일 ~ 10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강보합

- 5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좀 더 확대된 데다, 중소기업 대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6월중 서방 국가들(호주·캐나다·영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하고, 7월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美 금리와 함께 상승
- 원/달러 환율은 6월 중순부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1,300원대로 상승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경제 매물로 소폭 하락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7.5%, 서비스업생산 +2.0%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 전자부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7.5% 감소
 - 제조업ICT는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중공업과 경공업에서도 상당폭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 업종이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비 2.0% 증가

□ 고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지난 5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된 반면, 농림·어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1.3% → 1.2%)

□ 수출입 : 6월 수출 -6.0%, 수입 -11.7%, 무역흑자 약 11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도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11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IT업황의 부진 지속 등의 영향에도 IT품목들의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데다, 자동차·일반기계·선박·철강·자동차부품 등에서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6.0% 감소(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하고, 지역별로는 특히 EU, 중남미, 중동 등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 전환

1. 해외경제

□ 미국 : 5월 실물지표 흐름 미약, 연준 통화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

○ 5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미약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약세와 선행지수 하락 등 실물경기 여건의 부진이 지속.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유지를 결정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에 관심

- 산업생산이 광업(전월비 -0.4%)과 유틸리티(-1.8%)의 감소와 제조업의 미약한 증가(0.1%)로 5개월 만에 감소(-0.2%)하고, 소매판매도 자동차부품(1.4%) 등의 증가에도 주유소(-2.6%) 등 감소 여파로 소폭 증가(0.3%)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2022년 11월부터 7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하는 수준(46.9)이고,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48.6)와 미래 기대지수(71.5)의 동반 하락 영향으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102.3)
- 실업률이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3.7%로 높아지고,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부터 1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부진의 지속 가능성 시사
- 연준이 올해 美 성장률 전망치(4분기 0.4% → 1.0%)를 상향하면서도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 금리 인상 이후 현 금리(5.00~5.25%) 유지를 결정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9	2.1	3.2 (1.9)	2.6 (0.9)	2.0 (1.8)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5 (1.8)	-0.6 (-0.3)	-0.1 (-1.6)	0.0 (1.3)	0.1 (0.4)	0.5 (1.9)	-0.2 (-0.6)
내구재수주	18.4	8.3	0.5	0.5	-0.1	-2.7	3.3	1.2	1.8
소매판매	18.2	9.7	0.3	0.1	1.1	-0.7	-0.9	0.4	0.3
소비자물가	4.7	8.0	1.4	1.0	0.9	0.4	0.1	0.4	0.1
실업률(%)	5.4	3.6	3.6	3.6	3.5	3.6	3.5	3.4	3.7
무역수지(10억US\$)	-841.6	-951.2	-210.7	-213.5	-201.0	-70.2	-60.6	-74.4	-69.0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52.2	49.2	47.1	47.7	46.3	47.1	46.9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2.2	104.2	104.5	103.4	104.0	103.7	102.3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8	114.0	111.6	109.3	109.5	108.2	107.5	106.7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4월 실물지표 혼조세, 日銀(BOJ)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기조 유지

- 지난 4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기준 2개월 연속 상승세. 日銀(BOJ)이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유지를 결정하였으나, 최근의 엔화 超약세 및 高물가 부담으로 인해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2	1.0	-0.4	0.1	0.7				
광공업생산	5.8	0.0	3.1	-1.7	-1.8	-3.9	3.7	0.3	0.7
민간기계수주	6.0	5.5	-1.6	-4.7	2.6	9.5	-4.5	-3.9	5.5
소매판매	2.0	2.6	1.3	1.2	2.5	0.8	2.1	0.3	-1.1
소비자물가	-0.2	2.5	0.9	1.1	0.5	0.4	-0.6	0.3	0.6
실업률(%)	2.8	2.6	2.6	2.5	2.6	2.4	2.6	2.8	2.6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6,312	-5,662	-5,185	-3,506	-920	-759	-432
경기선행지수 ¹⁾	102.3	100.3	100.0	98.3	97.0	96.8	97.5	96.8	96.8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5월 내·외수 지표 부진, 인민銀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 주력

- 5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동반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수출 역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면서 내·외수 여건의 부진세를 반영. 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인하(3.55%, 사상 최저치)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력하는 양상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3.9	2.9	4.5				
산업생산	9.3	3.4	4.8	2.8	3.2	2.4	3.9	5.6	3.5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9	5.1	5.1	5.5	5.1	4.7	4.0
소매판매	12.4	-0.8	3.5	-2.7	7.1	3.5	10.6	18.4	12.7
소비자물가	0.9	2.0	2.7	1.8	1.3	1.0	0.7	0.1	0.2
수출(달러화기준)	29.6	7.0	10.2	-6.7	0.5	-1.3	14.8	8.5	-7.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4월 실물지표 약세,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상 기조 유지

- 4월중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미약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적자 전환.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 통화정책이사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가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4.0%)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3	3.5	0.4	-0.1	-0.1				
산업생산	8.8	2.2	0.1	-0.4	-0.2	0.6	1.4	-3.8	1.0
소매판매	5.1	0.9	-0.8	-1.0	-0.2	0.9	-0.2	-0.4	0.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9.3	10.0	8.0	8.6	8.5	6.9	7.0
무역수지(10억유로)	109.5	-328.6	-124.3	-58.4	1.4	-10.8	-1.8	14.0	-7.1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8	97.1	95.3	99.3	99.6	99.4	98.9	99.0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미 달러화 약세 & 유가 상승세

- 달러화는 6월에 美 연준의 금리 동결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이후, 주요국들의 차별적 통화정책 기조 영향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7월 들어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하락
- 유가는 지난 6월중 사우디의 추가 감산과 주요국 경제지표 방향,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으로 일정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7월초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과 미 원유재고 감소,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10일
엔/달러	148.71	138.07	131.12	130.09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1.31
달러/유로	0.9882	1.0406	1.0705	1.0863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1001
미 국채 (10년만기)	4.05	3.61	3.87	3.51	3.92	3.47	3.42	3.64	3.84	3.99
WTI유	86.5	80.6	80.3	78.9	77.1	75.7	76.8	68.1	70.6	73.0
두바이유	90.0	80.2	78.7	79.3	81.3	76.8	78.9	72.1	76.1	78.6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3%, 소비·투자 동반 증가

○ 지난 5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증가 전환(전월비 3.2%)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감소(-0.1%)에 그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 증가율(1.3%)을 기록

- 광공업생산은 화학(-2.7%)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4.4%), 자동차(8.7%) 등에서 상당폭 증가하면서 전월비 3.2%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1.6%), 운수창고(1.1%)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소폭 감소(-0.1%)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GDP성장률	4.1*	2.6*	3.2* (0.2*)	1.4* (-0.3*)	0.9* (0.3*)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7*	4.3*	5.2* (1.6*)	3.3* (-0.5*)	4.6* (0.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0*	-0.5*	4.4* (7.0*)	6.5* (2.4*)	5.9* (-5.0*)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3.5*	-2.0* (-0.1*)	-1.8* (1.3*)	1.9* (1.3*)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5.5 (0.4)	1.9 (-1.4)	1.2 (0.7)	3.4 (1.1)	2.0 (1.1)	-1.0* (-1.3*)	-0.9* (1.3*)
광공업생산지수	8.2	1.4	1.4 (-2.4)	-6.4 (-6.1)	-9.7 (-0.9)	-8.2 (-2.7)	-7.6 (4.7)	-9.0* (-0.6*)	-7.3* (3.2*)
제조업생산지수	8.4	1.4	1.4 (-2.6)	-6.7 (-6.4)	-10.0 (-0.9)	-8.4 (-2.6)	-7.6 (5.1)	-9.2* (-0.6*)	-7.5* (3.2*)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8.5 (1.7)	5.8 (0.2)	6.4 (1.2)	8.5 (2.1)	6.0 (-0.4)	2.9* (-0.5*)	2.0* (-0.1*)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9 (0.3)	-2.3 (-1.4)	-0.4 (1.1)	0.4 (5.2)	0.1 (0.1)	-1.4* (-2.6*)	-0.6* (0.4*)
설비투자지수	9.6	3.3	7.5 (8.6)	9.6 (-0.2)	-0.5 (-8.8)	4.1 (1.2)	1.9 (-2.5)	4.4* (0.9*)	-4.3* (3.5*)
건설기성액	-6.7	2.7	3.5 (0.8)	6.4 (4.9)	11.5 (4.6)	19.5 (3.5)	12.1 (-4.2)	12.3* (1.2*)	5.4* (0.5*)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8	108.3	109.0	108.9	108.8*	108.7	109.5*	110.0*	110.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0	100.5	100.8	100.1	99.2*	99.2	99.6*	99.8*	99.9*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1	109.5	109.4	109.3	109.4	109.4*	109.7*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3	100.0	99.9	99.5	98.9	98.9	98.6	98.4*	98.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전월비 0.5%)를 비롯해서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6%)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 등의 판매가 일제히 동반 증가세를 보인 데 힘입어 전월비 기준 재차 증가 전환(0.4%)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2.6%)에서 증가세를 회복하고, 운송장비(6.2%)에서 증가폭이 확대됨에 따라 상당폭 증가(3.5%)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0.1%) 공사 약세와 건축(0.7%) 공사 실적 증가에 소폭 증가(0.5%)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소매판매액지수 등의 하락에도 광공업생산지수와 수입액 등이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전월비 0.3%)하고, 선행종합지수도 건설수주액과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의 감소에도 수출입물가비율과 코스피지수, 경제심리지수 등에서 상승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0.3%)

□ 물가 : 6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보합, 전년동월비 +2.7%

- 6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6%) 등 소수 부문에서 하락한 모습이나, 주택·수도·전기·연료(0.5%), 음식·숙박(0.2%), 식료품·비주류음료(0.2%)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월비 보합(전년동월비 2.7%)
- 5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이 상승 전환(전월비 -1.8% → 1.5%)한 반면에, 공산품(0.1% → -0.8%)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0.3% → 0.0%) 가격이 보합에 그치면서 전월비 기준 2개월 연속 하락세(전년동월비 -0.3%)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2.5	5.1	5.3 (0.4)	4.7 (1.1)	3.2 (0.6)	5.2 (0.8)	4.8 (0.3)	4.2 (0.2)	3.7 (0.2)	3.3 (0.3)	2.7 (0.0)
근원물가	1.8	4.1	4.8 (1.2)	4.9 (1.3)	4.3 (0.9)	5.0 (0.7)	4.8 (0.3)	4.8 (0.2)	4.6 (0.4)	4.3 (0.4)	4.1 (0.2)
생산자물가	6.4	8.4	6.5 (0.1)	4.4* (0.1*)	-	5.1 (0.4)	4.8 (0.2)	3.3 (0.1)	1.6 (-0.1)	0.6* (-0.3*)	-
근원물가	6.0	6.4	4.0 (-0.2)	2.6* (0.3*)	-	3.0 (0.2)	2.8 (0.3)	1.9 (0.2)	1.0 (0.2)	0.2* (-0.2*)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5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 지난 5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대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23년 4월 +7.5조원 → 5월 +7.8조원, 대기업 +3.4조원, 중소기업 +4.4조원)
 - 대기업 대출이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상환 목적의 자금수요 등의 영향들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들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
- 회사채는 기업들의 만기 도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순상환 규모가 확대
(2023년 4월 -0.9조원 → 5월 -2.9조원)
- CP·단기사채는 일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순상환 기조를 시현
(2023년 4월 +1.7조원 → 5월 -3.7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
(2023년 4월 +0.1조원 → 5월 +0.3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5월말 잔액
	1~5월	5월	1~5월	5월	1~5월	3월	4월	5월	
■은행 원화대출	40.7	5.7	53.5	13.1	34.2	5.9	7.5	7.8	1,204.5
(대 기 업)	2.4	-0.8	14.3	4.3	14.2	0.1	3.1	3.4	231.0
(중소기업)	38.3	6.5	39.2	8.9	20.1	5.8	4.4	4.4	973.5
〈개인사업자〉	16.2	2.3	12.3	2.0	3.3	1.0	1.0	0.8	446.0
■회사채 순발행	10.8	-0.2	0.9	-1.6	5.9	2.2	-0.9	-2.9	..
■CP 순발행	7.9	-0.7	13.8	-1.5	2.9	-0.3	1.7	-3.7	59.4
■주식발행	12.4	3.2	17.7	0.4	2.4	0.3	0.1	0.3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 5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전월보다 더욱 확대되고, 기타 대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2023년 4월 +2.3조원 → 5월 +4.2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전세자금대출 둔화세가 약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4월 +2.8조원 → 5월 +4.3조원)
- 기타대출도 계절 요인이 소멸되면서 전월비 보합 수준
(2023년 4월 -0.5조원 → 5월 -0.02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5월말잔액
	1~5월	5월	1~5월	5월	1~5월	3월	4월	5월	
은행 가계대출	35.3	-1.6	-0.1	0.4	-1.6	-0.7	2.3	4.2	1,056.4
■주택담보대출	25.3	4.0	8.8	0.8	9.1	2.3	2.8	4.3	807.9
■기타대출	10.0	-5.5	-9.1	-0.5	-10.5	-2.9	-0.5	-0.02	247.3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7월 초순(7월 3일 ~ 10일) 금리 상승 & 원/달러 강보합

- 국고채(3년) 금리는 6월중 주요 서방 국가들(호주·캐나다·영국)의 금리 인상과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7월말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美 금리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
(7월 3일 3.613% → 7월 10일 3.795%, 3월 9일 이후 최고치, +0.18%p)
- 원/달러 환율은 6월에 수출업체들의 네고물량 출회,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으로 1,300원선을 일시 하회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1,300원대로 상승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 매물로 소폭 하락
(7월 3일 1,308.0원 → 7월 10일 1,306.5원, -1.5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4	5월	6월	7.10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27	3.46	3.66	3.80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07	4.26	4.47	4.59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59	3.76	3.75	3.75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01	4.01	4.02	4.03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301.9	1,327.2	1,317.7	1,306.5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81.4	946.0	907.0	919.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5월중 전년동월비 -7.5%, 전월비 +3.2%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18.5%), 기타운송장비(4.9%)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16.7%), 전자부품(-19.9%), 화학제품(-16.6%), 섬유제품(-10.1%) 기계장비(-6.8%), 1차금속(-2.9%)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7.5%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에서 여전히 상당폭의 감소세(-17.8%)가 이어지고, 중공업(-7.2%)과 경공업(-9.9%)도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 통신·방송장비(-16.9%), 화학제품(-2.7%)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동차(8.7%), 기계장비(6.1%), 섬유제품(4.9%), 반도체(4.4%), 1차금속(0.7%), 전자부품(0.2%) 등 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증가 전환(3.2%)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99.6)는 반도체,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3%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5%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3.3%로 전월과 달리 6.8%p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이 약간 더 확대(15.6% → 16.7%,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된 반면, 출하 감소폭이 축소(-6.7% → -2.3%)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9%로 전월보다 2.0%p 상승

□ 서비스업생산 : 5월중 전년동월비 +2.0%, 전월비 -0.1%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4.7%), 정보통신(-5.4%) 등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7.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1.7%) 등 업종이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비 2.0% 증가

- 전월비로는 숙박·음식점(-4.5%), 정보통신(-0.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0%) 등 업종에서 감소한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3.2%), 도소매(1.6%), 운수·창고(1.1%) 등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0.1% 감소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0.6% 감소, 전월비 기준으로는 0.9%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108.4	107.1	99.5	108.9	101.7	105.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1.4	-6.4	-9.7	-7.6	-9.0	-7.3	3.2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108.8	107.1	98.8	109.1	102.1	105.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1.4	-6.7	-10.0	-7.6	-9.2	-7.5	3.2
섬 유	113.4	2.0	-3.5	-3.9	-10.1	-7.8	-7.8	-12.8	-10.1	4.9
화 학	854.2	8.6	-9.9	-16.9	-20.1	-20.4	-19.7	-20.0	-16.6	-2.7
철 강	496.6	5.2	-8.5	-11.9	-23.3	-6.5	0.2	-1.0	-2.6	0.1
반도체	2,023.8	26.8	7.6	1.3	-19.8	-33.8	-26.9	-21.1	-16.7	4.4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14.2	10.8	0.7	22.6	-20.3	-11.5	12.9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4.3	-1.1	17.6	-15.1	-3.6	-18.3	-16.9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7.8	5.9	-4.3	-8.0	-15.7	-16.4	4.4
기계, 장비	737.3	12.1	1.1	7.2	5.4	0.7	4.9	-4.1	-6.8	6.1
자동차	987.5	6.3	9.1	18.8	17.5	21.6	27.1	16.7	18.5	8.7
조 선	66.0	-7.2	20.7	21.2	23.4	19.6	11.6	5.7	-2.5	-3.9
- 중 공 업	-	9.9	1.5	1.2	-7.3	-10.7	-7.9	-9.1	-7.2	3.2
- 경 공 업	-	1.3	0.4	2.5	-4.0	-5.6	-6.2	-9.5	-9.9	2.7
- 제조업ICT	-	19.3	2.2	-2.1	-19.7	-30.5	-26.4	-22.0	-17.8	2.2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0	112.0	112.5	117.9	111.8	117.5	113.9	115.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8.5	5.8	6.4	6.0	2.9	2.0	-0.1
도소매	193.9	4.3	2.7	3.5	1.1	2.8	0.5	-2.6	-1.4	1.6
운수및창고	78.4	4.2	17.7	23.8	17.7	17.3	18.6	12.3	7.5	1.1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23.0	9.8	16.3	17.9	1.8	-4.7	-4.5
정보통신	88.9	12.2	1.7	3.6	-1.0	-1.7	-3.6	-3.9	-5.4	-0.7
금융및보험	167.4	8.0	8.4	8.8	12.5	10.7	10.3	9.9	9.8	-4.1
부동산	38.7	2.3	8.0	9.5	6.0	4.1	5.8	2.3	2.8	3.2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5.0	-0.3	1.8	2.8	0.9	1.7	3.2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6.8	4.2	5.6	6.4	4.9	2.3	-1.0
교 육	73.5	1.5	1.2	0.7	0.3	1.1	0.9	-0.5	-0.4	-0.2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5.3	6.3	5.7	5.0	3.0	3.9	1.5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63.7	26.6	20.8	23.5	12.7	0.4	-0.7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6.9	5.9	13.8	18.0	4.2	3.4	-2.0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4.8	-4.8	0.6	1.1	-4.2	-2.2	4.4
- ICT서비스업	-	6.2	5.5	6.3	2.4	2.2	-1.1	-1.3	-0.6	0.9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 용

□ 취업자 수 : 5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지난 5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된 반면, 농림·어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1.3% → 1.2%)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0.9%)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감소(0.8% → -0.9%)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2개월 연속 둔화(2.0% → 1.8%)
-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1.5% → -3.0%)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율도 3개월 만에 하락(2.0% → 1.8%)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2% → 0.7%)에서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7.9% → 8.7%)과 정보통신업(3.1% → 6.2%),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5.5% → 6.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4% → 1.2%)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증가율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2.9%)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5%로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전 산업	27,273	28,089	28,425	28,216	27,767	27,363	27,714	28,223	28,432	28,835
전년동기비	1.4	3.0	2.8	2.2	1.5	1.5	1.1	1.7	1.3	1.2
농림·어업	0.9	4.6	5.7	2.0	-1.6	-3.8	-3.5	2.1	0.8	-0.9
제조업	-0.2	3.1	5.0	2.9	-0.8	-0.8	-0.6	-1.1	-2.1	-0.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2	2.1	2.1	2.3	1.8	2.3	2.0	1.8
건설업	3.7	1.6	-0.3	0.2	-1.0	-1.9	-0.2	-1.0	-1.5	-3.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1.0	2.4	2.2	2.8	1.8	2.0	2.0	1.8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3.9	1.0	1.4	1.3	0.2	2.7	1.2	1.5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2.8	2.6	2.9	3.3	2.7	2.8	3.0	2.9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8	2.9	2.7	2.9	2.6	2.7	2.6	2.5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6월 수출 6.0% 감소, 수입 11.7% 감소, 무역흑자 약 11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도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11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IT업황의 부진 지속 등의 영향에도 IT품목들의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데다, 자동차·일반기계·선박·철강·자동차부품 등에서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6.0% 감소(올해 들어 최저 감소율)하고, 지역별로는 EU, 중남미, 중동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 전환

- 수입은 유가 하락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27.3%)한 데다, 반도체·철강 등의 수입도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9.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1.0% 하락하고, 도입물량이 3.6%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28.6% 감소한 약 61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90 (-10.0)	1,513 (-12.7)	1,560 (-11.9)	500 (-7.6)	550 (-13.8)	495 (-14.3)	522 (-15.2)	542 (-6.0)
수입	6,151 (31.5)	7,314 (18.9)	1,776 (3.1)	1,739 (-2.2)	1,597 (-13.0)	553 (3.5)	597 (-6.5)	522 (-13.3)	543 (-14.0)	531 (-11.7)
무역수지	293	-478	-186	-226	-372	-53	-47	-27	-21	1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6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자동차·선박류·기계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6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

○ 반도체 : 글로벌 수요 부진과 메모리 가격 약세 지속,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에도 PC 수요 개선, 모바일 신제품 출시, AI 서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22년 10월 이후 감소폭이 최저치)

- **자동차** : 주요 선진국들의 소비 위축 우려에도 생산 정상화 및 대기수요 실현에 따른 판매 증가와 전기차 등 高부가가치 친환경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역대 6월중 최고 실적치를 달성(12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주요국 내 현지 완성차 공장 생산 정상화와 국산 자동차들의 글로벌 판매량 및 점유율 제고 등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선박류** : 선가 상승분이 반영된 '21년도 수주물량의 생산 및 수출 본격화와 高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LNG선) 인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 실적치를 기록
- **디스플레이** : IT·프리미엄(LTPO)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OLED 수출 회복에도 모바일 수요 회복 둔화로 인한 LCD 감산 및 글로벌 소비심리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세
-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 및 수요 둔화로 인한 휴대폰 교체 시기의 장기화 및 출하량 감소, 글로벌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이 '22년 4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
- **철강** : 주요국들의 건설 경기 회복의 지연과 주요 철강재 단가 하락 및 가격 약세에도 철강 구조물 등 해외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요 등에 힘입어 '22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 전환
- **섬유** : 의류 완제품 수출의 소폭 증가에도 주요 원사·직물 등 섬유 소재 수요 감소와 아시아 소싱국들의 신규 오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글로벌 항공 이동 증가에 따른 항공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화학** : 글로벌 수급 불균형 완화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에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세

- **일반기계** : 계절적 요인에 따른 냉·난방공조 수요 감소 등에도 북미 지역 중심의 굴착기 등 산업기계 수출 증가, 美·EU·중동 지역의 인프라 투자사업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주요 선진국들의 프리미엄 가전 수요 회복과 반도체 수급 개선 등의 영향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컴퓨터** : 전방수요 위축에 따른 주요 업체들의 생산 조정 및 수출물량 감소, 낸드 공급과잉 및 SSD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자동차	24.2	16.4	29.0	43.9	49.0	47.0	63.6	40.3	49.4	58.3
자동차부품	22.2	2.4	-1.1	-3.6	1.0	13.3	-5.6	-1.6	-0.8	5.7
선박류	16.4	-20.9	-22.6	1.9	21.1	-10.5	-26.1	59.2	-48.0	98.6
일반기계	4.6	2.0	-3.1	-2.0	5.8	12.9	-0.9	7.8	1.6	8.1
철 강	36.9	5.7	-17.6	-15.8	-5.7	-9.9	-10.9	-10.7	-8.9	3.1
석유화학	54.8	-1.4	-25.1	-22.4	-24.1	-18.2	-24.6	-23.6	-26.5	-22.0
석유제품	57.7	64.9	18.0	-0.4	-34.3	10.2	-18.5	-28.7	-33.2	-40.9
섬 유	14.0	-4.0	-18.7	-15.1	-11.0	-4.3	-12.1	-15.0	-14.9	-2.4
가 전	24.0	-7.4	-24.0	-8.5	-7.5	4.3	-8.3	-10.3	-13.6	3.3
무선통신기기	45.9	-10.4	-19.0	-12.8	-20.7	-2.0	-42.5	-34.3	-12.1	-12.0
컴퓨터	24.7	-4.7	-41.0	-61.9	-61.6	-64.9	-57.6	-73.3	-57.5	-53.5
반도체	29.0	1.0	-25.8	-40.0	-34.8	-42.5	-34.5	-41.0	-36.2	-28.0
디스플레이	18.9	-1.1	-20.2	-39.5	-16.5	-41.0	-41.6	-29.3	-7.4	-1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6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

현대경제연구원(2023년 6월)

- 2023년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됨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2.6%)보다 낮은 1.2%를 기록할 전망
-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미약,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수출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존 전망치(1.8%)에서 하향 조정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2021년	2022년			2023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4.3	3.0	2.3	2.6	0.9	1.5	1.2
	민간소비(%)	3.6	4.0	4.2	4.1	3.0	1.3	2.2
	건설투자(%)	-1.6	-3.8	-1.9	-2.8	0.6	0.3	0.5
	설비투자(%)	9.3	-7.0	5.5	-0.9	4.5	-5.0	-0.3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883	249	50	298	-40	290	250
	무역수지(억 달러)	293	-109	-368	-478	-290	16	-274
	수출 증가율(%)	25.7	15.6	-2.4	6.1	-13.0	1.2	-6.1
	수입 증가율(%)	31.5	26.4	12.4	18.9	-7.6	-9.3	-8.5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4.6	5.6	5.1	4.0	2.8	3.4
실업률(%)		3.7	3.3	2.5	2.9	3.1	2.8	3.0
취업자수 증감(만 명)		37	94	69	82	35	40	38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3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정 전망 배경 (1) : 실물경기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

-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 내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한은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추세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말을 정점으로 2023년 5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현재로서는 하반기 수출 반등과 내수 시장 개선으로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U'자형 경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하반기에 수출 침체의 장기화 또는 소비 위축이 지속될 경우,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도 우려

□ 수정 전망 배경 (2) : 내수 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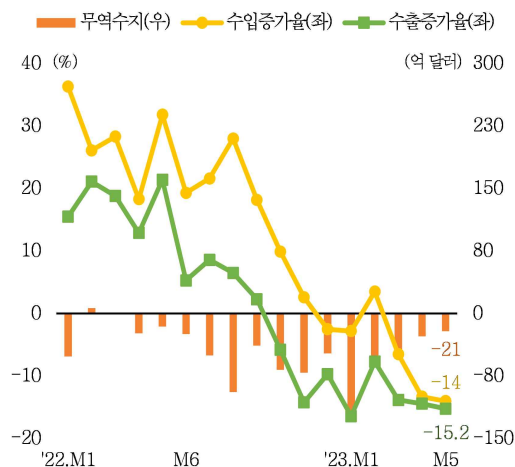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점차 위축되고, 설비투자는 ICT 투자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회복 지연 가능성이 우려
- 고금리 지속과 고물가 충격의 본격화,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 여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부진 및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로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수정 전망 배경 (3)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가능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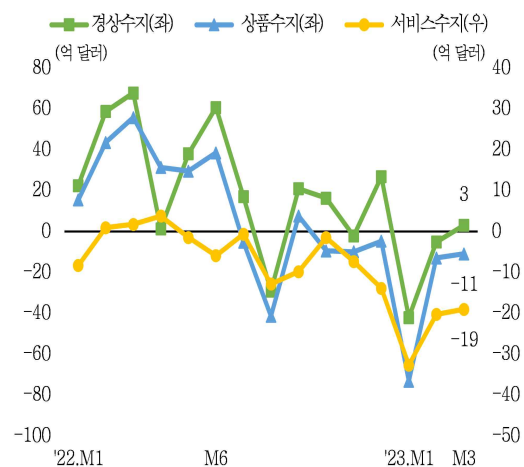
- (수출) 반도체 경기와 중국 시장에서의 불황 장기화, 글로벌 투자 위축, 미·중 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반등 기대감이 약화
- (수입) 수입은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약화 등으로 하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연간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 예상
-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운송수지·여행수지 적자 지속에 의한 서비스수지 악화로 2022년 대비 흑자 폭 축소 전망

〈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경상수지 부문별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경기의 동반 부진 여파로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거나,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
 - ①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
 - ② 국내 경기의 안정성 확보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 ③ 수출 부진 완화를 위해 기존의 경제외교 성과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대를 위한 통상외교 강화가 요구
 - ④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충격이 가장 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할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7.10일)	(7.11일)	(7.12일)	(7.13일)	(7.14일)
 6월 소비자물가		 5월 기계수주  6월 소비자물가  6월 고용동향	 6월 수출입통계  5월 산업생산  6월 생산자물가  금융통화위원회	 5월 산업생산(수)  5월 수출입통계
(7.17일)	(7.18일)	(7.19일)	(7.20일)	(7.21일)
 6월 산업생산  6월 소매판매  6월 고정투자  23.2분기 실질GDP	 5월 소매판매(수)  6월 산업생산  6월 소매판매	 6월 소비자물가(수)	 6월 무역수지(잠)  6월 경기선행지수	 6월 소비자물가  6월 생산자물가
(7.24일)	(7.25일)	(7.26일)	(7.27일)	(7.28일)
	 7월 소비자신뢰지수  연준 FOMC(7.26일)  23.2분기 실질GDP (속 보 치)	 5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7월 소비자동향조사	 BOJ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23.2분기 실질GDP (예 비 치)  6월 내구재수주잠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	 6월 무역수지(수)  7월 경제제감지수  6월 개인소비  6월 산업활동동향
(7.31일)	(8.1일)	(8.2일)	(8.3일)	(8.4일)
 6월 산업생산(잠)  6월 소매판매(잠)  7월 소비자물가(예)  23.2분기 실질GDP (예 비 치)	 6월 실업률  6월 실업률  7월 ISM 제조업지수	 7월 소비자물가	 7월 ISM 서비스업지수	 6월 소매판매  7월 고용보고서